



새로운 마취제 보급된다

- 낮은 가격, 대용량, 안전성 3박자 두루 갖춘 마취제 -

자일라진 성분이 함유된 새로운 사슴 전용 마취제(상품명 미정)가 보급될 전망이다.

ml당 100mg의 자일라진 성분이 함유된 이 신상품은 미국이 원산지로 현재 미국에서 사슴 전용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FDA(미국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1병당 50ml 용량이며 권장 사용량은 몸무게 300kg의 엘크를 기준으로 1회 마취시 3.3cc이다. 절각철 엘크 몸무게를 400kg 정도로 가정했을 때 권장 사용량대로 허실 없이 사용한다면 1병으로 10마리 이상의 마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다. 무엇보다도 회복제를 포함해 농가 공급가격이 9만원 선으로 기존 판매되고 있는 마취제보다 월등히 저렴, 가격 경쟁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제 보급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체크하기 위해 현재 여러 농장에서 지속적인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만족스러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용인 청평녹야원(대표:김은성)에서 실시된 마취 실험에서는 몸무게 350~400kg 엘크 수컷 성록이 각각 3.5cc, 4cc 주사에 10분과 6분만에 완전 마취에 들어가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마취 후 호흡상태도 안정적이며 침도 많이 흘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혀가 살아있어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되고 구강을 통한 약품 투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마취지속시간도 1시간~2시간으로 절각을 진행하는데 넉넉한 시간이다.

마취 후 회복상태도 양호했다. 3.5cc의 마취제를 주사한 사슴은 회복제 투여시 1분만에 마취에서 풀



▲ 신형 마취제에 의해 마취된 사슴



려나 곧바로 회복했으며 4cc의 마취제를 주사한 사슴은 6분여만에 마취에서 회복됐다.

이날 마취를 담당한 양육인 S씨는 “겨울인 현재, 사슴 몸 상태가 허약해져 있어 한창 영양상태가 좋은 절각기에는 오늘보다 1~2cc 정도 추가 마취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전체적으로 마취 및 회복상태는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보급된다면 본인도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며 이날 실험한 마취제에 대해 만족성을 표시했다.

충남 홍성 서해양육(대표:

안현정)에서 실시된 2차 실험에서도 각각 4cc의 마취제를 투여한 엘크 2마리가 8~10분 사이에 완전마취에 들어가 발굽손질 등을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으며 회복상태도 우수했다. 다만 대전 선화사슴농장(대표:엄명섭)에서 실시된 마취실험에서는 2.5cc 투여후 마취가 안돼 10여분 후 1cc를 추가했으나 완전마취에 들어가지 않아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마취 전 사슴의 이동이 있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 첫 마취제 2.5cc가 정확히 투여됐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성패여부는 판명되지 않았다.

향후 이 마취제에 대한 실험은 축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몇 차례 더 실시된 후 안전성 및 효과를 최종 점검하고 4월부터 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 침을 많이 흘리지 않는 것과 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취제 실험을 참관한 한 양육인은 “마취제 가격이 회복제를 포함, 9만원 안팎인 대신 용량은 50ml 대용량에 1회 마취 사용량 또한 그다지 많지 않아 마취제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양육**